광주역사민속박물관 10월30일까지 '유림숲속 방직공장; 버들꽃씨의 기록' 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4면 실감영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임동 방직공장 역사와 노동자 이야기

## 4면 실감영상·강제동원 여공 등 기억·기록들 다양한 매체로 만나

임동 방직공장을 재현한 모습

무명실(왼쪽)과 목화솜

어느 해 봄, 광주천을 따라 흘러온 버들꽃씨 하나가 홀연히 멈춰 섰다. 시간이 지나자 버들꽃씨에서 잎이 나고 점차 나무 가지가 돋아났다. 얼마 후에는 주변에 생김새가 비슷한 나무들이 주위를 에워쌌다. 나무들은 이내 '유림숲'을 일구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버들꽃씨가 빽빽한 유림숲을 떠다니는 장면이 들어온다.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조선후기의 유림숲이다. 네 개의 벽면에 구성된 실감영상은 사실적이며 환상적이다. 웅장한 숲의 이미지를 아름다우면서도 서정적으로 연출했다. 특히 초록으로 가득한 공간에 점점이 불을 밝힌 버들씨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다.

임동 일대는 그렇게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광주천변으로 우후죽순 제사공장들이 들어선다. 그 가운데 약림제사와 종방제사는 일본 자본에 해당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종방의 전남공장 부지로 낙점된 것은 숲이 우거진데다 특정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유림숲속 방직공장; 버들꽃씨의 기록'은 임동 방직공장의 기억과 기록을 다채로운 매체로 보여주는 전시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리며 지난 2021년 가동을 멈춘 임동 방직공장의 역사와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앞서 1부는 실감영상으로 짜여진 '유림숲의 작은 꽃씨'가 주제다. 꽃씨는 가상의 인물 역할을 한다. 관찰자 시점으로 꽃씨가 보여주는 풍경은 숲으로 대변되는 공간을 초점화한다.

2부에서는 유림숲에 조성된 종연방적 전남공장(종방)과 이곳에 동원됐던 어린 여공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장흥과 진도, 보성에서 광주 종방으로 오게 된 이들의 사연을 음성화한 자료는 엄혹했던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이 담겨 있다.

"거대한 방직공장 안으로는 축축한 열기가 가득했다. 여기에 사방으로 목화솜 먼지가 헤집고 다녔다. 얼굴로 파고드는 먼지 탓에 숨 쉬는 것마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장의 불은 꺼지는 날이 없었다. 하루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기계 앞에 선 소녀들의 얼굴에 깊은 고단함이 어렸다."

그렇다면 잠시 이런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광주에 방직 공장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실장에 따르면 "조선 후기 광주에는 목화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가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만큼 목화 재배에 열성적이었다"며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땅 어디를 가더라도 목화밭을 볼 수 있었지만 그 규모에 압도될 만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부 '임동 방직공장의 나날'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방직공장의 복구와 활황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당시 일본인들은 방직 기계 일부분을 떼어 가져가거나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이 떠난 공장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남았다. 간부급 이상 직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종업원들은 별도의 종업원위원회를 두어 재기를 모색했다.

이후 1961년 전남방직은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을 위해 회사 분리 결정을 내린다. 전남방직은 상호를 가지는 대신 도로(국도 1호선)에서 떨어진 광주천 쪽 부지를, 일신방직은 전남방직이라는 상호를 포기하는 대신 도로에서 가까운 부지를 가졌다. 이밖에 3부에는 1960~70년대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경험담과 아울러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4부는 '기계소리 멈춘 방직공장에서'를 주제로 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사실 방직공장의 가동 중단은 예견됐었다. 생산 설비는 오래 전 옮겨갔고 일하는 사람들도 줄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방직공장이 가동을 멈춘 후에야 사람들이 이곳을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방직공장 전경'을 비롯해 '발전소', '발전소 복원도' 등 사진은 새로운 느낌을 환기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관계자는 "방직공장에 대한 기억들은 중첩되어 유대를 형성하기도 했고 파편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었다"며 "방직공장이 없는 임동과 광주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도시 광주의 정체성 안으로 이 공간이 깊이 파고든 결과였다"고 말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드들강에서 바라본 다채로운 세계

## 광주 출신 홍관희 시인 '사랑 1그램' 펴내

"남평 드들강은 풍경이 수심보가 깊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 징검다리로 강을 건너거나 강변길을 따라 걷는 사람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드들강에서 바라본 각각의 세계는 같지만 같을 수 없다."

광주 출신 홍관희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사랑 1그램'(걷는 사람)을 펴냈다.

남평 드들강 인근에 사는 시인의 작품은 서정적이며 서경적이다. 매번 바라보는 드들강 풍경도 그날의 심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가올 것이다. 시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화자의 심상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전한다.

"사는 동안 건너야 하는 강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5분 거리에 있는 남평역에 닿으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너고서야 닿을 수 있는 곳이/ 남평역만은 아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너에게로 가 닿기 위해서도/ 강을 건너야 한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가는 중인데/ 너에게 가 닿기 위해/ 이제껏 건너온 강만 해도/ 헤아릴 길이 없다"

위 시 '드들강1'은 시인이 바라보는 강에 대한 단상이다. 여기에서 드들강은 단순히 자연적인 물리적인 강만을 함의하지 않는다. 시인에게 강은 오히려 지고한 예술 세계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더 가깝다. 아니면 시인이 추구해온 자신만의 이데아이거나 그 너머의 세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강을 건너고서야 닿을 수 있는 곳이 남평역만은 아니다"는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강이 드리워져 있다. 강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기에 우리 삶은 고달프지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성국 시인은 발문에서 "'사랑한 만큼 강은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계속 보여줄 것'임을 믿는 형이므로, 나는 그것이 '강물 위에 쓴 형의 시'라고 어림짐작한다"고 말한다.

한편 홍관희 시인은1982년 '한국시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그대 가슴 부르고 싶다', '홀로 무엇을 하리'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희극발레 대명사 '돈키호테' 만나요

## 광주시립발레단, 10월7일~9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발레단이 제132회 정기공연 '돈키호테'를 선보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린다. 〈사진〉

공연에는 국내외로 활동 중인 예술인이 대거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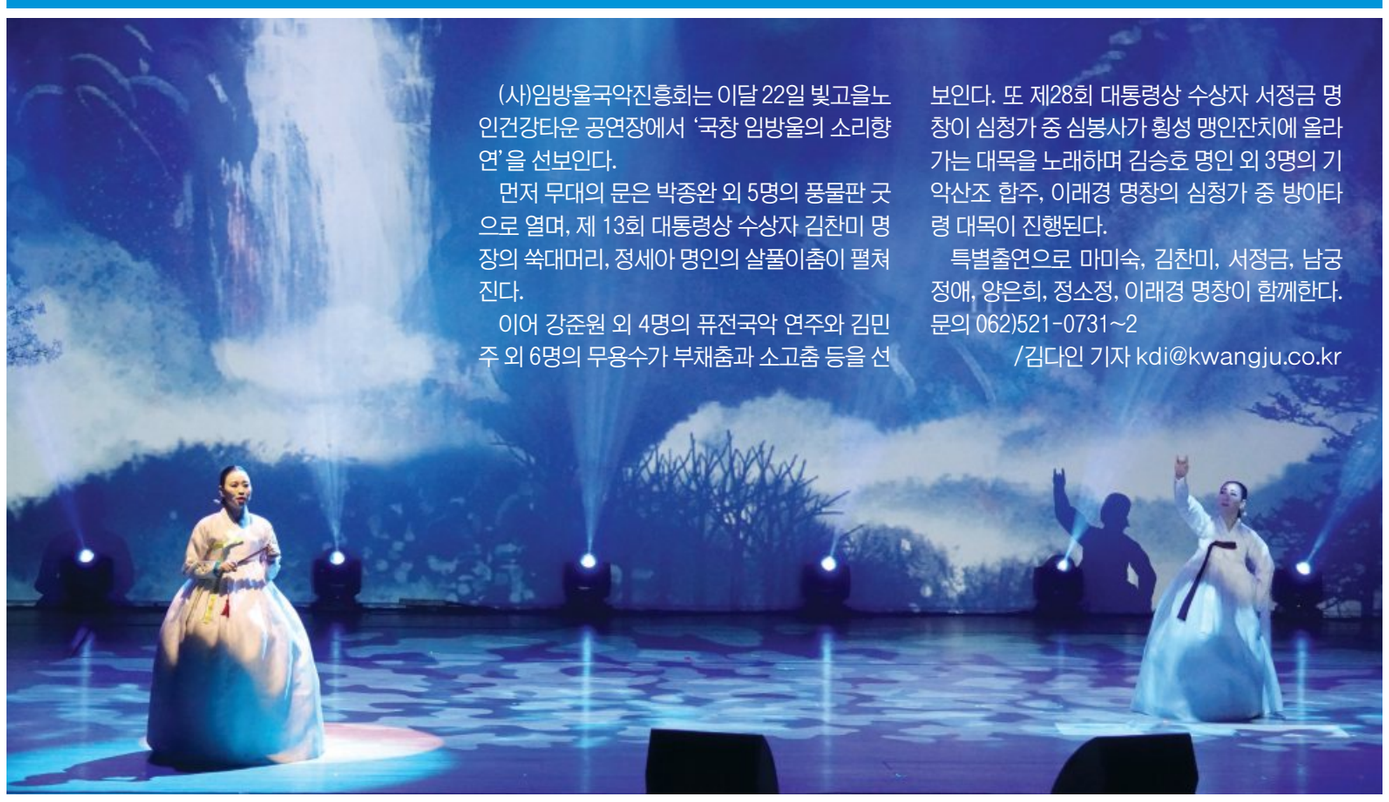
공연의 예술감독과 총연출은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안무에는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츠키 독일 슈투트가르트 무용단 제작감독이 참여한다. 뿐만아니라 박승유 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해져 섬세하고 감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 고전 발레 중 가장 인기있는 희극발레 돈키호테를 선보이게 됐다. 회차 별 무용수 각각의 매력을 부각시켜 공연의 매력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며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해 탄탄한 줄거리, 아름다운 음악,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들의 테크니컬한 춤과 연기, 대규모 오케스트라 선율을 더해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 하며,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2-8716.

/김다인 기자 kdi@

# '국창 임방울의 소리향연' 2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이달 2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국창 임방울의 소리향연'을 선보인다.

먼저 무대의 문은 박종완 외 5명의 풍물판 굿으로 열며, 제 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의 쑥대머리, 정세아 명인의 살풀이춤이 펼쳐진다.

이어 강준원 외 4명의 퓨전국악 연주와 김민주 외 6명의 무용수가 부채춤과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또 제28회 대통령상 수상자 서정금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가 횡성 맹인잔치에 올라가는 대목을 노래하며 김승호 명인 외 3명의 기악산조 합주, 이래경 명창의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이 진행된다.

특별출연으로 마미숙, 김찬미, 서정금, 남궁정애, 양은희, 정소정, 이래경 명창이 함께한다. 문의 062)521-0731~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삶의 향기 솔솔~' 빛고을예술단 토크콘서트

## 24일 펭귄마을 공예거리

(사)빛고을예술단이 창립 이래 첫 토크콘서트를 연다. 빛고을예술단은 오는 24일 오후 6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무대와 이야기 장을 마련한다.

이날 콘서트에선 지스타의 퓨전난타 공연과 가수 김동규의 통기타 공연, 트로트 가수 김성원의 열창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빛고을예술단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에피소드, 품바 등에 대한 얘기 외에도 각설이 공연도 이어진다.

특별 초대손님으로는 김봉연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가 초대돼 홈런타자로서의 에피소드와 은퇴 후의 삶을 얘기한다.

나덕주 빛고을예술단장은 "많은 단체들의 획일적인 공연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삶의 향기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함께 배우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빛고을 예술단은 2005년 8월 창립,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순회 등을 포함해 총 734차례 공연을 진행했다.공연 문의 010-3604-513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